

고하 송진우선생 탄신 122주년 추모식

추모사

오늘 우리는 조국광복을 위해 헌신하신
고하 송진우 선생님의 탄신 122주년을 맞이하여
선생님이 남기신 위대한 업적과
송고한 위국헌신정신을 기리고
그 유지를 계승·발전시키고자
자리를 함께 하였습니다.

먼저, 평생을 조국의 독립과
민주국가 건설을 위해 고귀한 삶을 살다 가신
선생님의 영전에 삼가 경건한 마음으로
명복을 빕니다.

고하 선생님께서는 교육자로서
'실력을 양성하여 독립의 기회를 엿보자'는 말씀으로, 학생들에게 실력양성론을 전파하셨으며

언론인으로써 일제 치하에서
국민계몽과 인재육성에 심혈을 기울이시고 민족혼을 일깨우는 데 헌신하셨습니다.
또한 3.1운동을 적극 계획하신 혐의로 체포되어 민족대표48인으로써
옥고를 치르기도 하셨습니다.

3.1운동 후 일제가 문화통치를 표방하자,
동아일보 사장으로 취임한 선생님은
일제의 온갖 탄압과 회유를 물리치고,
언론의 정도를 걸으면서 조국의 독립을 도모하셨으며,

광복 후에는 자유 민주국가 건설을 위해 선진사상과 경륜을 펼치시며
부강한 조국을 일으키고자 진력하셨습니다.

이처럼, 선생님은 일제의 혹독한 언론탄압에도 굴하지 않는 불굴의 정신과, 확고한 신념으로 조국의
자주독립과 민주주의에 외길로 매진하시어 애국혼의 표상으로 우뚝 서 계십니다.

민족의 큰 지도자이신 고하 선생님!

선생님을 비롯한 애국선열들의
송고한 희생이 있었기에
우리 민족은 자존을 지킬 수 있었고
지금의 자유롭고 풍요로운
나라를 이루어 낼 수 있었습니다.

국제회의장에도 들어가지 못해
비분강개하던 아시아의 작은 국가는,
이제 세계 주요 회의를
주재하는 국가가 되어
세계의 중심에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아시아에서 최초로
G20 정상회의를 유치했고,
지난 3월 26일에는
핵 안보 정상회의를 유치해
세계 평화에 기여하였습니다.
이 모든 성장의 가장 큰 원동력은
선생님을 비롯한 선열들의
조국과 민족을 향한 사랑과
숭고한 희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현실을 돌아보면
선생님께 송구스러운 마음을
감출 길이 없습니다.

많은 젊은 세대는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 및 대한민국의 안보현실에
무관심한 실정이며,

분단의 현실 아래,
북한은 핵실험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며
끊임없이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보적으로 중요한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는
우리 국민 한사람 한사람의
국가안보를 지키고자 하는
의지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국가보훈처에서는 2012년도 정책기조로
국민이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 할 수 있는 마음을
갖도록 하는 『선제보훈』정책을 적극 추진하여
국가정체성을 바로 세우고
국민통합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선생님께서도
저희들이 모든 어려움을 헤치고
대한민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나아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고하 송진우 선생님께
무한한 존경과 추모의 마음을 바치며,
영원한 안식을 빕니다.

부디 영면하소서!

2012. 5. 8.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윤 두 섭